

순천시, 청년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도심공원·응급의료체계 구축도
문화·우주·바이오 일자리 창출

순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펼치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 동부권 인구가 70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 등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순천시는 올해 50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예산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131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개소 89호의 추가 공급 계획도 수립 중이다.

저전동 일원에 청년 임대세어하우스 16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월세 및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등의 간접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실제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순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



순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주거정책을 펼치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순천시가 조성한 청년세어하우스 4호. 순천시 제공

작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주거와 의료, 일자리 등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오천그린광장과 풍덕수변공원 등 도심 속에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평일 저녁, 야간에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 등을 이끌어내며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천시는 문화콘텐츠·우주·바이오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청년

들을 위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순천시 출생아 수는 540명으로 전남 출생아 수 2912명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남에서 6년 연속 최다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은 33.7%로, 전남 평균 28.3%를 웃돌며 전남에서 ‘젊은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생활환경이 선순환하는 도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성 기자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완료

군농리 등 5곳 반출 금지 지정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조치를 완료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올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달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다. 보성군은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달에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방제

를 완료, 훈증 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 작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올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육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11월 1일~다음해 5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보성군은 올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설계 대상지에 회천면 군농리 일대를 포함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방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곡성군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지정·운영

곡성군이 장미축제가 열리는 5월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로 지정·운영,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축제장 내 별도의 홍보

부스를 설치, 대표 음식을 알리고 있다.

곡성군의 대표 음식은 참깨와 은어다. 압록 참깨 은어 거리는 곡성군 오곡면과 죽곡면의 섬진강로, 압록유원지, 대항강로 일대에 13개의

음식점이 1.6km에 걸쳐 조성됐다.

곡성군은 방문객들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축제 참가 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위생점점을 실시하고 식자재 관리부터 조리과정, 손님 응대까지 식품 안전의 모든 단계를 점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곡성=류성 기자

고흥군의회, 노동중 학생들 ‘청소년 모의의회’

전자표결 등 운영 절차 체험

고흥군의회는 최근 노동중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고흥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모의의회에서 학생들은 직접 의장, 의원, 사무과장 등의 역할을 맡아 의회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안건 상정 및 질의·답변, 전자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

의원 역할을 맡은 7명의 학생 의원은 ‘편식을 줄이자’, ‘차별을 차이로 바꾸는 사회를 만들자’, ‘학교폭력 예방’, ‘학생들의 지나친 비속어 사용 문제’, ‘SNS 중독 문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자’ 등 다양한 주제로 3분 자유발언을 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가 본회의장을 울렸다. 이

어 학생 의원들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토론 과정을 거쳐 모두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AI 및 로봇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이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고흥군의회는 학생들이 제안한 조례안과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흥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청소년 모의의회는 오는 28일 개최되며, 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류제동 고흥군의회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구례 광의초등학교 학생들과 농촌 유학생 등 36명이 논에서 모내기 체험을 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광의초·농촌유학생 전통 모내기 체험

구례군은 광의면의 한 마을 논에서 농촌 유학생과 광의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내기 체험을 했다

모내기 체험은 광의초등학교와 영농조합법인 신농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은 직접 맨발로 논에 들어가 전통 농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농촌 유학생 20명과 지역 초등학교생 16명 등 총 3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농촌 유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광의면장, 구례농협지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학생들은 모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심는 방법을 익히고, 논 생태계와 벼의 생장 과정을 학습했다.

학생들은 가을 수확에 맞춰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수확된 쌀은 아이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유학이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사업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업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장흥임씨대중회,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장흥임씨대중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탁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장흥임씨대중회 임명규 회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응원했다. 장흥임씨대중회는 3만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명규 대중회장은 “성씨 본관주의 고향이 장흥이며, 조선시대 정안현이 장흥도호부로 승격되는 데 역할을 한 공예대후의 친정 또한 장흥이다”며 “조상의 뿌리가 되는 고향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여수시 쌍봉동지사협, 취약가구 여름이불 지원

여수시 쌍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가구에 여름 이불을 지원했다.

협의체 위원과 주민센터 직원들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살폈다.

이원두 위원장은 “이번 여름 이불 지원 사업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은 정성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따뜻한 쌍봉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호 쌍봉동장은 “폭염일수가 해마다 늘어가는 가운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담양군 봉산면지사협, 봉산댁 이음반찬 전달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산댁 이음반찬’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반찬 조리는 봉산면 직접자부녀회가 맡아 오리탕, 열무김치, 멸치볶음 등 3종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52개 가정에 전달했다.

‘봉산댁 이음반찬’은 봉산면의 특화 복지사업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8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밑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매년 담양애포에서 400여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송맹승 봉산면 직접자부녀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졌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